



흑한에 하루 한끼·묵언 정진...첫 동안거 야외천막결사

‘한국불교중흥’ 발원 9명 스님들
위례신도시 포교당 건립부지서
천막 하나에 의지해 극한 수행
삭발·목욕 금지...웃 1별만 허용
“출가수행자 결연한 의지 모아
침체된 한국불교 변화 이끌 것”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9명의 스님들이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하며 ‘동안거 야외천막결사’를 진행한다. 100여일 간 천막 하나에 의지해 흑한을 견디고, 치열한 정진을 통해 한국불교의 수행풍토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출가수행자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극한에 도전하는 야외천막결사는 침체된 한국불교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자승 스님과 수좌 정묵, 무연(동광), 성곡(서울 약사암 일심선원 한주), 중앙종회의원 진각, 호산, 심우, 도림, 전 양평상원사 주지 재현 스님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위례신도시 포교당 건립 부지에 천막법당을 설치하고 동안거 야외천막결사를 진행하기로 최근 확정했다. 서리를 맞고 달을 밟 삼아 정진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천막법당을 상월선원(霜月禪院)이라 이름 짓고, 선원을 이글 소임도 정했다. 선덕에는 수좌 정묵 스님, 선원장은 무연 스님, 입승은 진각 스님, 지객은 호산 스님이 맡았다. 또 결사 기간 동안 상월선원 정진 대중들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울 봉은사 주지 원명, 성남 봉곡사 주지 혜일 스님이 외호대중으로 나선다. 다만 최근 사고로 다리를 다친 선덕 정묵 스님의 동참여부는 10월 중순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야외천막결사에 동참하는 스님들은 자체 청규를 제정하고 수행에 임하는 각오도 다졌다. 이에 따르면 천막법당을 설치해 9명이 함께 생활하되, 동안거 해제 때까지 묵언을 실천하고, 하루 한 끼만을 공양하며 매일 기쁜 14시간 이상 좌선과 행선을 하기로 했다. 또 동안거 해제 때까지 삭발과 목욕을 금지하고 웃도 1별만 허용하기로 했다. 외부인과의 접촉은 일체 않으며, 천막법당을 벗어날 수 없도록 했다.

청규가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방부를 들이기에 앞서 “청규를 준수하지 않

고, 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천막법당을 벗어날 경우 조계종 승적에서 제외한다”는 각서와 함께 제직원을 총무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는 야외천막결사가 ‘보여주기’가 아닌 수행자로서 불퇴전의 각오로 정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보인다.

진각 스님 등에 따르면 야외천막결사는 지난 2월 백담사에서 무문관 수행을 마친 자승 스님이 “수행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치열하게 정진하는 것만이 침체된 한국불교를 변화시키는 길”이라며 “동안거 한철만이라도 승가본연의 모습으로 살아보자”고 제안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취지에 공감한 선원 수좌 스님들과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이 속속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본격화됐다. 특히 스님들은 부처님이 길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것처럼 기존 선원에서 벗어나 도심 한복판에서 한국불교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답을 찾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님들은 동안거 야외천막결사를 위한 장소를 물색했고, 여러 후보지 가운데 위례신도시 종교유지를 결사 장소로 최종 선정했다. 위례신도시 종교유지는 조계종이 2014년 신도시 포교를 위해 매입한 부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포교당 건립본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스님들은 포교당 건립에 앞서 야외천막법당을 짓고 동안거 결사를 진행하면서 위례신도시 포교당이 조계종의 수행과 기도 중심도량으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는 계획이다.

한국불교사에서 불교의 변화와 개혁을 발원한 역대 선지식들이 산중사찰에 선원을 짓고 수행결사를 진행한 적은 많지만 도심 법판에 야외천막법당을 짓고 동안거 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선원에서 정진하던 수좌뿐 아니라 오랫동안 중무행정을 담당해 온 스님들이 의기투합해 새로운 형태의 안거를 진행하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이다.

선덕 정묵 스님은 “옛날 수많은 선지식들은 목숨을 걸고 공부를 했지만, 근래에 이런 수행풍토가 열어서 아쉽게 생각해 오고 있었다”며 “선원에서 함께 정진했던 스님들이 제대로 된 수행을 해보라고 제안해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다리를 다친 것이 변수이지만 뜻깊은 야외천막결사에 가급적 참여해 치열하게 정진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3면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오늘은 내가 주인공! 도전- 범종을 울려라”

그동안 배운 부처님 가르침을 거두고 나누는 축제 한마당으로, 불교계 대표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나란다축제가 9월 21일 서울 동국대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 초등부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400여명의 천진불들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 닦은 불교상식을 마음껏 뽐냈다. ▶ 관련기사 5면

그동안 배운 부처님 가르침을 거두고 나누는 축제 한마당으로, 불교계 대표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나란다축제가 9월 21일 서울 동국대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 초등부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400여명의 천진불들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 닦은 불교상식을 마음껏 뽐냈다. ▶ 관련기사 5면

“불교계 자율성 위해 세계유산관리법 수정 중”

관련 법안 발의 정진석 의원

소유자 전통사찰 배제 지적에

“불교계 요구 수용 하겠다”

국가와 지자체가 전통사찰 소유의 세계유산 등을 직접 관리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회부돼 불교계 자율성 박탈 논란이 이는 가운데 해당법안을 대 표발의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통사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수정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진석 의원은 9월22일 법보신문에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관리법)이 불교계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불교계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조계종과 공동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정진석 의원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 중인 ‘세계유산관리법’은 유네

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국내 소재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 재정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16년 11월 발의됐다.

그러나 세계유산관리법이 세계유산을 소유하고 보존·관리해온 전통사찰을 배제하고 있어 독립성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세계유산관리법은 중앙행정기관 장을 비롯해 시장, 도지사 등이 세계유산 지원 관련 계획 수립시 문화재청하고 협의토록 명시한 점, 세계유산을 소유한 전통사찰 동의 없이 문화재청장이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하는 점, 관할 사·도지사 혹은 문화재청장이 세계유산 소유자인 전통사찰 동의나 협의도 없이 세계유산 보존·관리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할 수 있는 점 등 불교계 독립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와 중앙종회에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중단 집행부처원의 대응을 주문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진석 의원은 “법안 발의

후 약 2년 뒤인 2018년 7월 국내 7개 사찰이 포함된 ‘한산, 한국의 산지 승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뒤늦게 세계유산관리법 적용대상이 됐다”며 “불교계 요구를 최대한 반영, 현재 법사위에 회부돼 있는 법안의 수정작업을 위한 해당 위원회 간사실 등을 방문해 경위 및 내용 수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계 수정 요구를 100% 받아들여겠다는 게 대표발의자의 입장”이라며 “불교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면서 해당 특별법에 대한 수정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법사위에서는 자구수정만 가능해 조계종 요구는 법사위와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와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후 법사위 제2소위에 회부, 내용 수정에 대한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법사위에서 내용 수정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최고 체육훈장 수상

‘평창동계올림픽’ 공로로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체육훈장 최고 등급인 청룡장을 수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2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오찬과 함께 진행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유공자 전수식’에서 이기흥 중앙신도회장(대한체육회장)에게 청룡장을 수여했다.

이기흥 회장은 대한체육회 수장으로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운영, 성과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2019년도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개산 1374주년 불지중가 국지대찰

통도사 영축문화축제

기간 : 9월 13일(금) ~ 10월 20일(일)

▶ 주요행사

10월 4일(금)
복(腹)고(go) 한복패션쇼 | 성보박물관 앞 (오후2시)

10월 5일(토)
영축삼보이온 | 산문주차장 (오전9시)
괘불헌공 | 괘불대 앞 (오전11시)
만발공양 | 설선당 잔디밭 (오전11시)
제6회 청소년 창작댄스경연대회 | 설선당 잔디밭 (오후2시)

10월 6일(일)
초청음악공연(미스트롯 우승자 송가인) | 설선당 잔디밭 (오후1시)

10월 7일(월)
영고재 | 해장보각 (오전10시)
개산대재 법요식 | 설법전 (오전11시)
부도헌다례 | 부도전 (오후2시)

關山

천년도량 영축산의 하늘이 드넓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는
개산 1374주년을 맞아 개산조 자장율사를 기리는
영고재와 함께 여러분들을 축제의 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전화 055)382-7182 전승 055)382-7196 www.tongdosa.or.kr